https://doi.org/10.21186/IPR.2020.5.3.135

『協吉通義』 本原一의 5行에 관한 연구

권영수*,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A Study of five elements in 『Hyupgiltongui』 Bonwon chapter one

Yung-soo Kwon*,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오행(五行)이란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원소(元素)로 인간 삶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상징화(象徵化)되었다. 또 각각의 특유한 기(氣)는 만물의 존재(存在)와 작용(作用)의 유래(由來)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오행이론(五行理論)은 오행의 상생·상극(上生·相剋), 오행 자체, 간지오행(干支五行)의 결합, 오행의 왕상휴수사(旺相休囚死), 오행과 음양(陰陽)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협길통의(協吉通義)』 본원일(本原一)에서는 5행(五行), 간지5행(干支五行), 5행용사(五行用事), 5행생왕(五行生旺), 3합(三合), 6합(六合), 5합화기(五合化氣)등으로 세분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활용하면 오행이론(五行理論)만으로 명(命)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이론(理論)과 결합하여 보다 세밀한 간명(看命)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오행, 음양, 간지, 기(氣), 미래예측

Abstract Five elements that form all things have been symbolized in that they are indispensable elements in human life. Moreover, each unique energy has been used to explain the existence of all creation and the origin of actio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can be changed and utilized into various forms, including co-existence and conflict of five elements, five elements itself, the combination of Ganji five elements, Wangsanhyususa(旺相休囚死), five elements and Yin-yang. Especially, 『Hyupgiltongui Bonwon chapter one covers five elements, five elements of Ganji, seasonal use of five elements, prosperity and decline of five elements depending on seasons, Union of 3 elements among Twelve Zodiac Signs(三合), Union of two elements among Twelve Zodiac Signs(六合), changes of Cheongan 5hab. Therefore, if you analyze and utilize them, you can tell someone's fortune by theory of five elements only and read fortune in detail by combining it with other theories.

Key Words : Five elements, Yin-Yang, Ganji (Celestial Stems), Energy(氣), Reading Fortune

Received 15 June 2020, Revised 08 July 2020
Accepted 21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명과학(命課學) 고시과목인 『협길통의』는 정조(正祖)의 명(命)에 의하여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관찬서(官撰書)이다. 『홍재전서(弘齊全書)』에는 정조가 쓴 서문(序文)이 보인다. "내가 운관(雲觀)에 지시하여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와 『상길통서(象吉通書)』 두 책을 참고하여 합(合)하되 그 가운데 번잡한 것은 삭제(削除)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 『협길통의』라 명명(命名)하였다." 또 『서운관지(書雲觀誌)』[76]에는 정조가 서운관(書雲觀) 관리들에게 『협길통의』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대목에서 "길흉을 가리는 것은 역서(曆書)를 수찬(修撰)하는 중요한 일이고 하늘을 공경하는 큰 도리이다."[77]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이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협길통의』에서 소개되는 명리학 이론 중에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과 기존에 소개된 명리이론에 설명을 덧붙인 경우도 있지만 현대명리 관련 서적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이론이나 원리도 있다. 예컨대 납음(納音)과 납갑(納甲), 육십화갑자(六十花甲子)이론은 오늘날에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십간십이지론(十干十二支論), 오행의 상생상극론(相生相剋論), 육친론(六親論), 오행용사(五行用事), 오행생왕(五行生旺) 등의 이론은 현재 논의되어 온 내용과 대동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립 과정과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를 재해석하여 현대명리학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행(五行)을 직접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음양오행론을 통합한 연구(양계초, 1993[78]; 장동순, 2000[79]; 조주은, 2015[80]; 김기, 2016[81]; 김기승, 2017[82])와 그 외 관련 연구(소재학, 2009[83]; 이민홍, 2018[84])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협길통의』 본원일에는 오행(五行), 간지오행(干支五行), 오행용사(五行用事), 오행생왕(五行生旺), 삼합(三合), 육합(六合), 오합화기(五合化氣) 등으로 세분하여 오행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길통의』 본원일에서 다루는 오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협길통의』 5行論

2.1 오행

고대 중국에서 오행은 음양과 함께 우주만물과 인사를 해석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오행개념의 기원은 오방설(五方說), 오재설(五材說)[85], 육부삼사설(六府三事說)[86] 등이 있다.

자연계의 다섯 가지 물질을 지칭하던 오행은 추연(鄒衍)에 의해 자연계의 다섯 기운의 움직임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우주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오행이 물질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의미로 활용되어진 기원을 「홍범(洪範)」[87]에서 찾는 의견들도 있다. 「홍범」은 기존 학설에서는 주초(周初)에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수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절(劉節)이 『홍범소증(洪範疏證)』에서 「홍범」이 만들어진 연대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인 전국시대 말기라는 주장을 펴면서부터 「홍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거론되었다. 유절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학자들은 양계초와 굴만리 등이다. 조셉 니덤(Joseph Needham)에 의하면 「홍범」의 저작자는 기자가 아닌 여러 시대에 나온 단편들을 모아 만든 것으로

76) 조선 정조 때의 천문학자 성주덕(成周悳)이 서운관의 내력과 천문·지리·역법(曆法)·기상관측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책.
77) 성주덕 편저, 이면우 외 역주, 『서운관지(書雲觀誌)』, 서울, 소명출판, 394쪽, "正宗癸丑 命監臣等若曰 剋擇爲修曆之要務 敬天地大道"
78) 양계초·풍우란外 著, 김홍경 編譯(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79) 장동순(2000), "음양오행이론의 과학성과 실용", 서울: 공주대 동양학연구소 초자연현상연구 vol.7
80) 조주은(2015), "음양오행의 통합과정 연구:천인관계론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1) 김기 著(2016), 『음양오행설의 이해』, 서울: 문사철
82) 김기승·이상천 著(2017), 『음양오행론의 역사와 원리』, 서울: 다산글방
83) 소재학(2009), "오행과 십간십이지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 이민홍(2018), "오행론의 인문학적 위상과 동아시아 역대 왕조", 서울: 동양한문학회 동방한문학 vol.75
85) 물, 불, 쇠, 나무, 흙을 말한다.
86) 육부는 水 ,火 ,金 ,木, 土, 穀. 삼사는 正德, 利用, 厚生.
87)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 중국 하(夏) 나라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洛書)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가 전함. 홍범은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뜻이며, 구주는 9개의 조항으로 곧 9조목의 큰 법, 또는 정치이념을 말함. 주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선정(善政)의 방법을 물었을 때 기자가 홍범구주로 교시하였다고 전해짐. 9개의 조항은 오행(五行) • 오사(五事) • 팔정(八政) • 오기(五紀) • 황극(皇極) • 삼덕(三德) • 계의(稽疑) • 서징(庶徵) •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임. <한국고전용어사전>

보고 있으며 제작 연대는 진대(秦代)로 보고 있으며 아무리 빨라도 추연 이전은 아니라고 보았다.[88]

음양과 오행은 본래 각각의 근원을 가진다. 음양(陰陽)은 체계적인 우주론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인 노장의 도가가 중시한 개념이고, 오행(五行)은 구체적으로 물질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齊)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문화권에서 중시한 개념이다. 음양과 오행의 융합은 추연 이후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음양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우주만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시적 차원의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했다.[89] 『상서(尙書)』「홍범구주(洪範九疇)」에는 철학적 의미의 오행론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오행이란 첫째는 水요, 둘째는 火요, 셋째는 木이요, 넷째는 金이요, 다섯째는 土이다. 水는 적시며 흘러내리고, 火는 타오르며, 木은 굽었다가 곧았다가 하며, 金은 변혁시키며, 土는 심고 가꾼다. 흘러내리면 짠맛을 만들고, 타오르면 쓴맛을 만들고, 굽었다가 곧았다가 하면 신맛을 만들고, 변혁시키면 매운맛을 만들고, 심고 가꾸면 단맛을 만든다."[90]

오행의 성질은 사시(四時)의 변화와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하는 나무, 불, 흙, 쇠, 물의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오재(五材)는 오행의 기(氣)와 질(質)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서 오행의 성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중서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는 "천지의 기는 합해지면 일(一)이 되고 , 나누어지면 음양이 되고, 다시 나누어지면 사시가 되고, 나열하면 오행이 된다."[91]는 흐름을 제시했다. 이러한 천지지기→음양→오행의 기일원론적인 우주흐름은 북송의 주돈이(周敦頤)에게 전승되었다. 주돈이는 이것을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성리학적 우주론의 기초 이론으로 삼았다.

오행의 상생상극의 형태와 관련하여 추연(鄒衍)[92]은 木·火·土·金·水 오행의 상승(相勝)이론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세계의 운행질서를 이해하고, 이로써 역사 변화를 예측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여 정치에 접목하였다. 예컨대 하(夏), 은(殷), 주(周) 삼대는 木, 金, 火의 순서로 덕(德)이 바뀐 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은(殷)의 덕성이 金이고 주(周)의 덕이 火인지, 근거를 밝히지도 알 수도 없다. 다만 비의(比擬)하여 쓸 뿐이다. 명리학의 근본적 원리에 대한 물음이자 효용성의 영역으로 남겨둘 뿐이다. 『백호통의(白虎通義)』[93] 「오행」편에서는 오행의 상생(相生)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전한(前漢)의 정치적 안정기가 오면서 木火土金水로 차례차례 생성해간다는 정권의 선양(禪讓)형태를 취하는 상생설(相生說)로 변화했다. 추연의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은 동중서(董仲舒)[94]에 의해 유학의 정치적, 도덕적 이념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동중서가 인의예지신 오상(五常)을 천도(天道)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음양오행과 연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연의 오덕종시설은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유학이념의 이론적 설명수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오행은 그 자체로도 깊이를 달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육십화갑자(六十花甲子)'가 대표적이다.

또 『협길통의』 오행의 항목에서는 오행 중 土의 특징을 자세히 논한다. "土는 하도낙서 모두 5·10을 중궁(中宮)의 수로 삼기 때문에 정해진 방위(方位)가 없고 전적으로 맡은 것도 없다." 『여씨춘추(呂氏春秋)』[95]

88) 김기승·이상천, 『음양오행론의 역사와 원리』, 다산글방, 2017, 59~61쪽.

89) 김기승·이상천, 『음양오행론의 역사와 원리』, 다산글방, 2017, 65.

90) 四庫全書 DB, 『尙書』「洪範九疇」.五行. "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潤下作鹹,炎上作苦,曲直作酸,從革作辛,稼穡作甘."

91) 『春秋繁露』「五行相生」: 天地之氣, 合而爲一, 分爲陰陽, 判爲四時, 列爲五行.

92)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보다 약간 늦게 등장하여 음양오행설을 제창하였다.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토(土) ·목(木) ·금(金) ·화(火) ·수(水)의 오행상승(五行相勝) 원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여 역사의 추이(推移)나 미래에 대한 예견(豫見)을 하였다. 이것은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93) 중국 후한(後漢)시대 반고(班固:32~92)가 편찬한 경서(經書). 4권으로 되었으며, 후한의 장제(章帝)가 79년에 북궁(北宮) 백호관(白虎觀)에 여러 유학자를 모아, 유교 경서에 관한 해석이 학자에 따라 다른 점에 대해 토론케 하고 그때 나온 각종 의견을 절충하여 정리시켜 《백호통덕론》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반고가 칙령(勅令)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94) 중국 전한(前漢) 때의 유학자.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크게 인재를 구하므로 현량대책(賢良對策)을 올려 인정을 받았다. 전한의 새로운 문교정책에 참여했다.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게 되고, 국가 문교의 중심이 유가(儒家)에 통일된 것은 그의 영향이 크다.

95)기원전 239년 중국 진나라의 재상인 여불위가 주도하여 편집한

에서는 “土는 계하(季夏)의 달에서 상생의 순서를 좇는다.”고 하였다. 『백호통의(白虎通義)』에서는 또 “土는 진술축미 사계(四季)를 가리키며 사시(四時)에 나뉘어 왕성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문왕(文王)의 후천 도상(圖象)에서 곤(坤)과 간(艮) 2土는 하추동춘(夏秋冬春)의 교차계(交叉界)에 홀로 자리하고, 火는 반드시 土를 얻고서야 능히 金을 이룰 수 있으며, 水는 반드시 土를 얻은 후에야 능히 木을 낳을 수 있다.”[96]오행을 다루고 있는『천기대요』,『협기변방서』,『협길통의』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기대요』 는 수(數)의 오행, 정오행, 오행상생, 오행상극에 대해 개념정리를 하고 있다. 『협기변방서』는 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다, 중궁 土의 위상과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협길통의』는 『협기변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천기대요』에서 오행의 개념정리를 했다면, 『협기변방서』에서는 오행 중 土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협길통의』는 이를 따르고 있다.

2.2 남음오행

납음(納音), 즉 음을 채용하는 과정은 천간과 지지를 배합하고 그 배합된 간지에 일정한 음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천간지지가 배합되어진 고유값(音)을 구하기 위해서는 천간과 지지에 각각 고유값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이에 태현수(太玄數)를 사용한다. 각각의 천간과 지지에 일정한 수가 배정되어 있는데, 가령 甲己와 子午는 9, 乙庚과 丑未는 8, 丙辛과 寅申은 7, 丁壬과 卯酉는 6, 戊癸와 辰戌丑未는 5, 巳亥는 4를 각각 배당하였다. 천간과 지지를 결합하여 상하(上下)의 간지를 이루는데 모두 60개의 조합이 있는데 육십갑자(六十甲子)가 그것이다. 육십갑자의 모든 천간과 지지에는 태현수의 원리에 의하여 각각 고유의 수가 배정되어 있다. 천간지지에 따라 납음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대연수(大衍數) 50을 살펴보니 그것은 49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천간과 두 개의 지지의 합수를 49에서 뺀 나머지의 수에서 10단위수를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의 수가 1과 6이면 水, 2와 7이면 火, 3과 8이면 木, 4와 9이면 金, 5와 10이면 土이다. 각각 오행이 발생하는 바를 취하여 납음이라 한다 ... 납음은 나머지수를 사용하여 오행을 정한다 ... 가령 甲9, 子9, 乙8, 丑8인데 그 합수인 34를 49에서 빼고 남은 수 15인데 10은 사용하지 않으니 나머지의 수 5를 구하니 이는 土에 속하며 土는 金을 생하는 고로 甲子와 乙丑은 金이라 한다.[97]

위 내용에 따르면 천간과 지지에 일정한 수를 배정한 후에 이를 합산하는 데 두 개의 천간과 두 개의 지지 즉 음양의 짝을 이루는 상하간지에서 수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합수를 49수에서 빼서 구한 수에서 다시 십의 자리 수를 빼고 일의 자리 수를 구한다. 일의 자리 수가 1과 6이면 水, 2와 7이면 火, 3과 8이면 木, 4와 9이면 金, 5와 10이면 土에 해당하며, 여기서 구한 오행이 생(生)하는 오행이 최종적인 납음오행(納音五行)이다.

2.3 간지오행

오행을 간지(干支)와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다. 천간의 5합(五合)과 지지의 6합(六合)과 3합(三合)이 있다. 천간오합은 화기오행(化氣五行)이라고도 한다. 천간의 5합은 甲己합화(合化)土에서 보듯이 천간인 甲과 己가 합하여 土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중정지합(中正之合)’으로 풀이한다. 중정(中正)이란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른 뜻을 갖고 있으니 그렇게 풀이하면 된다. 최근에는 그 이론이 확장되어 甲己가 행운(行運)에서 합화하면 이를 ‘작용의 정지’로 해석[98]하기도 한다. 지지의 6합인 子丑합土의 경우, 연지(年支)와 일지(日支)에 子丑이 있어 합을 이루면 그 운명은 사주에 길성(吉星)이 있으면 더욱 길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지의 3합은 세 개의 지지가 합(合)하여 국(局)을 이루면 더욱 강한 기운을 갖게 된다. 예컨대 申子辰이 합을 이루면 水국이 된다. 간명법(看命法)으로는 복식판단(複式判斷)과 단식판단(單

백과사전이다. 제자백가 중 잡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여람(呂覽)》이라고도 한다.

96) 然土於圖書爲五十中宮之數 無定位 無辜體者也。惟呂氏春秋 則以土直季夏之月以順相生之序。白虎通 又以土直辰戌丑未之四季而分旺於四時。文王後天圖象坤艮二土獨居夏秋冬春之交 則以火必得土而後能成金 水必得土而後能生木也。

97)『星曆考原』「納音干支起數合五行」, “今按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以兩干 兩支之合數於四十九內, 減之餘數. 又滿十去之餘, 一六爲水, 二七爲火, 三八爲木, 四九爲金, 五十爲土, 各取所生之五行以爲納音, 如是則與河圖相同. 又揲蓍之法用 餘策 以定奇偶. 此用餘數 以定五行, 其理正相合也. 如甲九子九乙八丑八, 其合數 三十四, 於四十九內, 減之餘十五, 逢十不用, 餘五屬土, 土生金. 故曰金.”

98) 김기승,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016, 224∽226쪽.

式判斷)이 있는데, 복식판단이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와 육신(六神)의 동태로 길흉을 판단한다면, 단식판단은 형충파해(刑沖破害) 등의 제살(諸殺)과 간합·지합 등의 제합(諸合)으로 판단하는 것이다.[99] 따라서 화기오행인 간합(干合),지합(支合)으로 명(命)을 살핀다면 이는 단식판단이라 할 수 있다.

『협길통의』에서 간합인 오합의 설명을 본다. 오합(五合)은 천간(天干)에서 오위(五位)끼리 만나면 상합(相合)이 되는 원리이다. 하도(河圖)에서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은 모두 같은 방위(方位)에서 만나 합(合)을 이루고 있다. 십간(十干)으로 바꾸어 보면, 1이 甲이고 6이 己이니 甲己가 합(合)이 되었고, 2가 乙이고 7이 庚이므로 乙庚이 합(合)이 되었다. 3이 丙이고 8이 辛이므로 丙辛이 합(合)이 되었고, 4가 丁이고 9가 壬이니 丁壬이 합(合)이 되었다. 5가 戊이고 10이 癸이니 戊癸가 합(合)을 이루었다. 또 연(年)에서 월(月)을 일으키는 것과 일(日)에서 시(時)를 일으키는 것도 5위를 건너뛰면 60화갑(花甲)이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니 월(月)에서와 같은 간(干)이 되므로 역시 오합(五合)의 의미와 일치하게 된다. 안찰하면, 화기지리(化氣之理)는 심괄(沈括)이 『황제내경(皇帝內徑)』「소문(素問)」에서 그 논리를 가장 잘 밝혀 놓았다. 「소문」에 오운육기(五運六氣)가 있다. 오운(五運)이란 甲己는 합화(合化)하여 토운(土運)이 되고, 乙庚合化金, 丙辛合化水, 丁壬合化木, 戊癸는 합화(合化)하여 화운(火運)이다.

甲己가 천간인 해(歲)에는 戊己가 금천지기(黔天之氣)인데, 각진(角軫)을 지나고, 각(角)은 辰에 속하고 진(軫)은 巳에 속하게 된다. 그해에는 戊辰己巳를 얻고 천간은 모두 土이다. 그러므로 토운(土運)이 된다.

오합화기(五合化氣) 이론은 천간합(天干合)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오늘날 명리와 관련된 서적에서는 주로 천간합의 결과만 설명하고있는 점을 볼 때, 『협길통의』 오합화기이론에서는 간합(干合)이 되는 조건과 과정을 천체의 운행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자 향후 명리 연구에 활용가치가 크다고 본다.

천간합(天干合)은 甲丙戊庚壬 다섯 개의 양간과 乙丁己辛癸 음간이 합하는 것이다. 두 개의 간(干)이 오행으로는 상극하지만 음양이 다르다는 원리로 합하는 것이다. 천간(天干)은 자신의 주관성과 객관성, 이성과 감성이 모두 드러난 성격이자 사회성으로 천간의 오합은 합 자체로 변화를 주도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심리행동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만들어낸다.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評註)』에서도 천간합화(天干合化)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천간의 합(合)과 화(化)는 십천간의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형성된다. 하도(河圖)의 수는 1, 2, 3, 4, 5를 6, 7, 8, 9, 10에 배합함으로써 선천지도(先天之道)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태음(太陰)의 水에서 시작하여 충기(沖氣)의 土에서 끝난다. 이 과정이 오행의 기가 상생(相生)하는 순서가 된다. 무릇 오행이 있기 전에 먼저 음양과 노소가 있었고 그 후에 기가 충하여 土를 생하니 이리하여 마침내 오행이 된 것이다. 만물은 또 土로부터 생하며 水火木金은 또한 土에 기생하게 되는 까닭에 土가 먼저 있게 된다. 따라서 갑기합(甲己合)에서 시작하니 화(化)하여 土가 된다. 土는 金을 생하니 따라서 乙庚이 합하여 金으로 화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순서가 된다."

천간오합(天干五合)은 명리학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변화작용이다. 개인의 사회성과 정신적인 면, 직업이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곳이 천간(天干)인데, 이러한 천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천간오합이기 때문이다. 천간오합은 사주원국(四柱原局)에서의 변화는 물론 운로(運路)의 길흉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천간(天干)의 합(合)은 합으로 새로운 오행(五行)을 만들거나, 한쪽 오행으로 변화되거나, 작용이 묶이거나,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주 내의 합이 있고, 일간과 대세운 천간과의 합, 또 일간을 제외한 사주천간과 대세운의 천간의 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은 오행의 기를 변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일간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행동심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즉 간합(干合)의 심리변화작용을 사주원국(四柱原局)의 합과 행운(行運)의 합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갑기합화토(甲己合化土)는 사주원국에서는 중정지합(中正之合)이고 행운에서는 작용의 정지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을경합화금(乙庚合化金)은 인의지합(仁義之合)이고 세력의 강화이며, 병신합화수(丙辛合化水)는 위엄지합(威

99) 백영관, 『사주정설』, 서울, 명문당, 1985, 45쪽.

嚴之合)이고 새로운 창출이며, 정임합화목(丁壬合化木)은 인수지합(仁壽之合)이고 방향의 전환이며, 무계합화화(戊癸合化火)는 무정지합(無情之合)이고 이동과 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00]천간합을 다루고 있는『천기대요』,『협기변방서』,『협길통의』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기대요』는 간합을 '화기오행(化氣五行)'으로 설명한다. 결론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협기변방서』는 십간화기(十干化氣)의 근원을 상세히 설명한다. 『협길통의』는 『협기변방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세 책 모두 큰 차이 없이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지지합(地支合)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는 12지지 중에서 이웃하는 3개의 지지가 하나의 국(局)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방합(方合)을 말한다. 예컨대 하나는 寅卯辰이 합해져서 목국(木局)이 되고 巳午未가 합해져서 화국(火局)이 되고 申酉戌이 합해져서 금국(金局)이 되며 亥子丑이 합해져서 수국(水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협길통의』에서 설명하는 삼합이다. 오행의 12운성 중에서 장생(長生), 제왕(帝旺), 묘(墓)에 해당하는 지지 3개가 합해져서 새로운 오행의 국(局)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협길통의』에서는 삼합(三合)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삼합이 수・화・목・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회남자』에서는 토(土)에 대해서도 3합이 되며 그 성립조건은 火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회남자』에서는 12운성(十二運星)의 12개 지위 중에서 삼합의 조건이 되는 3개의 지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 장생(長生)이라 하여 일반적인 명칭과 차이가 없으나, 다섯 번째 자리는 제왕(帝王)을 장(壯)이라 하고 아홉 번째 자리는 묘(墓)를 사(死) 또는 종(終)으로 표시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3개의 지지(地支)가 합해져서 새로운 오행의 국(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회남자』에서는 국(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원』에 이르기를, 육합(六合)은 월건(月建)이 월장(月將)과 상합(相合)하는 것이다. 가령 정월건(正月建)이 寅이면 월장(月將)이 亥가 되니 寅亥가 상합이 된다. 2월건 卯에서는 월장이 戌이 되니 卯戌이 상합이 된다. 월건은 좌선(左旋)하고 월장은 우전(右轉)하면서 순역(順逆)에 따라 서로 만난다. 그러므로 육합(六合)이 생기는 것이다. 육합(六合)의 원리는 간지오행(干支五行)에서의 지지합(地支合)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는 12지지(地支)가 짝을 지어 합(合)이 되면서 새로운 오행(五行)으로 되는 원리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6합에 대해『천기대요』,『협기변방서』,『협길통의』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기대요』는 육합(지지의 합) 중, 오일미월(午日未月) 상합은 합화(合化)하지 않음을 서술한다. 『협기변방서』는 "일월이 午에서 모이면 두건(斗建)은 未가 되고, 일월이 未에서 모이면 두건(斗建)은 午가 된다. 그러므로 午未가 합(合)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2.4 오행생왕

오행은 계절(季節)에 따라 왕성해지기도 쇠약해지기도 한다. 오행이 때가 마땅한 것은 왕(旺)이며, 나를 생하는 것은 상(相)이고, 극하는 것은 사(死)이며, 내가 생하는 것은 휴(休)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수(囚)이다. 무릇 명(命) 중에서 왕상(旺相)을 많이 만나는 자는 길(吉)하고, 수휴사(囚休死)를 많이 만나는 자는 그 복이 멸(滅)한다. 이를 『원천강오성삼명지남』에서는 '오행왕상'으로, 『천기대요』와 『협길통의』에서는 '오행생왕'으로, 『사주정설』에서는 '오행왕쇠'라 한다. 『협길통의』에서 보여주는 오행생왕(五行生旺)이론은 오늘날에는 12운성론(十二運星論)으로 설명되고 있다. 십이운성은 왕상휴수사(旺相休囚死)와는 달리 오행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더 세밀하게 해석한다. 십천간의 기운변화를 열두 가지의 시간흐름 즉 계절이나 달을 나타내는 십이지지의 순환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운의 변화를 나타낸다.[101] 즉 오행의 다섯 가지 모습인 왕상휴수사를 열두 개로 확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원천강(袁天綱 : 정확히는 袁天綱五星三命指南)』에서는 '오행왕상례(五行旺相例)'로 설명하고 있다. 오행이 때가 마땅한 것은 왕(旺)이며, 나를 생하는 것은 상(相)이고, 극하는 것은 사(死)이며, 내가 생하는 것은 휴(休)이고, 나를 극하는 자는 수(囚)이다. 왕상(旺相)을 많이 만나면 길(吉)하고 휴수사(休囚死)를 많이 만나면

100) 김기승, 『과학명리』, 다산글방, 2016, 224~228쪽.

101) 지문국(2012), 「십이운성론의 명리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복(福)이 없다고 하여 오행의 왕상휴수사 자체로도 명(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 오행의 왕상휴수사를 확장한 십이운성 즉 포태법을 '오행발용(五行發用)'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간을 사계절의 기후에 배열하여 왕쇠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천간은 천상의 기(氣)라서 왕쇠가 없지만 지지(地支)에 속하는 기후를 만나서 왕이나 쇠로 되며, 지지를 만나지 못하면 왕쇠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천간의 오행이 지지를 만나 장생(長生), 목욕(沐浴), 관대(冠帶), 건록(建祿), 제왕(帝王), 쇠(衰), 병(丙), 사(死), 묘(墓), 절(絶), 태(胎), 양(養)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거듭하며 순환하는 이치를 만물의 생성과정과 인간의 유장노사(幼壯老死)에 결부시킨 것으로서 불교의 12연기(緣起)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2운성은 신살(神殺)과 같이 자체적인 길흉이 통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보조적인 간법으로 유용하다.

火는 寅이 장생이고, 卯가 목욕, 辰이 관대, 巳가 건록(임관), 午가 제왕, 未가 쇠, 申이 병, 酉가 사, 戌이 묘(장), 亥가 절(포), 子가 태, 丑이 양이다. 金은 巳午未申酉戌亥子丑寅卯辰, 水土는 申酉戌亥子丑寅卯辰巳午未, 木은 亥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의 순서로 전개된다.

『천기대요』는 '오행생왕례'에서 '장생법(長生法)'이라 하여 소개하고 있다.甲木장생亥, 乙木장생午, 丙火장생寅, 丁火장생酉, 戊土壬水장생申, 己土癸水장생卯, 庚金장생巳, 辛金장생子이다.『협길통의』에서 보여주는 오행생왕(五行生旺)이론은 오늘날에는 12운성론(十二運星論)으로 설명되고 있다. "『고원(考原)』에 이르기를, 木의 장생(長生)은 亥이고, 火의 장생은 寅, 金의 장생은 巳, 水의 장생은 申, 土의 장생 역시 申, 기생(寄生)은 寅이다. 이와 같이 각각 장생(長生), 沐浴(목욕), 관대(冠帶), 임관(任官), 제왕(帝王), 쇠(衰), 병(病), 사(死), 묘(墓), 절(絶), 태(胎), 양(養)까지 12진(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천도(天道)의 순환은 생생하며 끊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목방(木方)이 왕하면 火가 이미 생하고, 화방(火方)이 왕하면 金도 이미 생하고, 금방(金方)이 왕하면 水도 이미 생하며, 수방(水方)이 왕하면 木도 이미 생한다. 이는 장생으로부터 순서대로 추진하는데 어린 것은 반드시 건장하고 왕성해지고 쇠퇴해져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니, 그 운행이 갈마들어 마침은 없다. 이것이 바로 4계절이 번갈아 오가는 까닭이며 오행의 기(氣)가 순서대로 드러나는 까닭이다. 土에서 지극해지고 申에서 태어나 寅에 기대어 사는 것은 후천팔괘도의 곤간(坤艮)의 지위이다. 따라서 주역 곤괘(坤卦)에서는 만물을 모두 낳아서 기름을 다한다고 했고, 간괘(艮卦)에서는 만물의 끝을 이루는 것과 시작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오행장생(五行長生)의 뜻을 살피자면 고원(考原)의 설명이 매우 명료하다. 土가 寅申에서 장생이 된다는 것은 인용만 하고 아직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水土가 동일하게 申에서 장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申은 곤(坤)이 되고 곤(坤)은 땅이 되니 水土가 응결되는 바가 된다. 土는 寅에 의지하여 산다. 寅은 맹춘(孟春)이 되고, 맹춘의 계절에는 하늘의 기(氣)는 아래로 하강하고 땅의 기는 위로 상승하여 천지가 온화하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초목이 싹이 튼다. 그러므로 오로지 홍범(洪範)에서는 土가 申에서 장생이 되므로 오행의 체(體)가 된다고 하였다. 음양가, 선택가 등 제가에서는 土가 寅에서 장생이 되므로 오행의 용(用)이 된다고 한다. 모두 장생이 寅에 있으면 임관(臨官)은 巳에 있다. 이 때문에 土가 왕성하면 金이 장생이 된다. 木, 火, 水도 이와 같이 동일한 예가 된다. 그런즉 土가 寅에서 장생이 되는 까닭에 오행이 차례로 상생하는 순서가 된다. 이처럼 월령(月令)에서 土는 하추교역기(夏秋交易期)에 왕성하여 4시(四時)의 순서가 서로 상생하는 차례가 되는 것도 자연의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또 양(陽)이 사(死)가 되면 음(陰)이 장생이 되고 양(陽)은 순행(順行)하고 음(陰)은 역행(逆行)한다는 설(說)이 있는데, 甲木이 午에서 사(死)가 되면 乙木은 장생이 되고, 丙戊가 酉에서 사(死)가 되면 丁은 반드시 장생이 되며, 庚金이 子에서 사(死)가 되면 辛金이 장생이 되고, 壬水가 卯에서 사(死)가 되면 癸水는 장생이 된다. 장생(長生), 목욕(沐浴)을 거쳐서 12위(位)를 모두 거꾸로 돌아 양(陽)이 사(死)가 되면 음(陰)은 장생이 되고 음(陰)이 사(死)가 되면 양(陽)은 장생이 된다. 이것이 음양(陰陽) 이기(二氣)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양(陽)이 임관(臨官)이 되면 음(陰)은 제왕(帝王)이 되고 음(陰)이 임관(臨官)이 되면 양(陽)이 제왕(帝王)이 된다. 이것은 4시(四時)가 모이는 것이다. 순행과 역행이 나누어지고 합해져서 지극하게 묘한 이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십간(十干)을 논하면 음양(陰陽)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오행(五行)을 논하면 음양이 통합되는 것은 오히려 천지자연

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수(數)라는 것은 길흉신살(吉凶神殺)이 일어나는 근본이 된다."[102]오늘날 12운성론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원천강오성삼명지남』과 『천기대요』는 수토동궁(水土同宮)의 입장이나, 『협기변방서』와『협길통의』는 화토동궁(火土同宮)의 입장을 취해 대조를 이룬다. 『사주정설』에서 土에 대한 설명이 이채롭다. 土 오행은 사계절(辰未戌丑월)에 가장 왕성하며 여름에도 왕성하다. 가을과 겨울에는 쇠약해지며 봄에는 가장 쇠약해진다.

『협길통의』에서 보여주는 오행생왕(五行生旺)이론은 오늘날에는 12운성론(十二運星論)으로 설명되고 있다. 십이운성은 왕상휴수사(旺相休囚死)와는 달리 오행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더 세밀하게 해석한다. 십천간의 기운변화를 12가지의 시간흐름 즉 계절이나 월을 나타내는 십이지지의 순환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운의 변화를 나타낸다[103]. 십이운성은 일본의 사주학자들이 주로 응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거의 채용하지 않고 천간의 왕상휴수사의 원리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십이운성에 관한 이론이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십이운성을 잘 운용하면 적중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십이운성을 가지고 성격, 운세, 체질, 직업 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주학은 어디까지나 격국과 용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이운성은 보조역할에 국한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음간(陰干)의 십이운성을 버리고 양간(陽干)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4]십이운성은 한대를 거쳐 원말명초의 『연해자평』으로 전개되어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오행의 기운이 4계절에 따라 다른 것을 왕상휴수사(旺相休囚死)라 한다. 『연해자평』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오행을 십간별로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십이운성을 사용하였다. 『정선명리약언(精選命理約言)』에서는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행만을 활용한 왕상휴수사이론 즉 음양동생동사설(陰陽同生同死說)을 주장한다. 그러나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오행을 양간과 음간으로 구분하여 음생양사 양생음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논천간생왕사절(論天干生旺死絶)」에 잘 나타나 있다.

양생음사(陽生陰死), 음생양사(陰生陽死)의 논리는 십이운성의 핵심내용으로 음(陰)과 양(陽)은 같이 살고 같이 죽지 않는다. 즉 음양동생동사(陰陽同生同死)하지 않는다. 낮은 양(陽)이고 밤은 음(陰)이다. 아침에 해가 떠서 낮이 오면 밤은 사라지고 저녁 무렵에 해가 서산으로 져서 낮이 사라지면 밤이 온다. 또한 양극즉음생(陽極卽陰生)은 양(陽)이 극(極)에 도달하면 음(陰)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즉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에 이르면 양(陽)이 극(極)에 도달함이라. 이때부터 음陰)이 시작되어 밤이 점점 길어지니 겨울이 시작되는 것이다. 양(陽)이 극(極)에 도달하면 음(陰)으로 변하고 음(陰)이 극(極)에 도달하면 양(陽)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는 항상 음(陰)과 양(陽)의 상태가 계속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土 오행의 십이운성(생왕묘절)은 오행 土를 火에 배속시켜 생왕묘절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水에 배속시켜 생왕묘절을 정할 것인가는 이미 오래전 음양오행설 자체의 논쟁에 기인한다. 戊土는 하늘에서는 안개, 흙, 먼지, 황사다. 땅에서는 고산토(高山土)이다. 또한 戊土는 모든 사물을 포용(包容)하는 성분이며 陽土로서 능히 水를 거역(拒逆)하는 제방(堤防)의 土이다. 戊土는 천지중앙(天地中央)을 수(守)하고 삼라만물을 넉넉히 기르고 중앙에 집(集)한다. 戊土는 寅에서 생하고 巳에 祿이며 酉에 死한다. 陽土는 陽火를 희(喜)하며 丙火는 寅에서 長生이고 寅은 간궁(艮宮)에 속하고 간(艮)은 山이다. 戊土는 陰金에 기(氣)를 도(盜)함을 두려워한다. 酉金은 戊

102) 考原日 木長生於亥 火長生於寅 金長生於巳 水長生於申 土亦長生於申 寄生於寅。各由長生沐浴冠帶臨官帝旺衰病死墓絶胎養順歷十二辰。益天道循環 生生不已。故木方旺而火已生 火方旺而金已生 金方旺而水已生 水方旺而木已生。由長生而順推 稚則必壯 盛則必衰 終而復始 送運不窮。此四時之所以錯行 五氣之所以順布也。至於土生於申 而寄生於寅 則後天坤良之位。故易於坤曰 萬物皆致養焉。於艮曰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按五行長生之義 考原之說甚明 而土之生於寅申 則引而未發 由今考之 水土之同生於申也。申爲坤 坤爲地 水土所以凝也。土之寄所以和同 生於寅也 寅爲孟春 孟春之月 天氣下降 地氣上騰 天地草木所以萌動也。是故洪範家獨以土生於申爲五行之體 陰陽選擇諸家皆以土生於寅爲五行之用。益長生在寅則臨官在巳 乃爲土旺金生 與木火水同爲一例。然則以土爲生於寅者 所以順五行相生之序 固與月令 土旺於夏秋之交以順四時相生之序 者同出於理之自然 而非爲臆說也。外此又有陽死陰生 陽順陰逆之說。甲木死於午則乙木生焉 丙戊死於酉則丁己生焉 庚金死於子則辛金生焉 壬水死於卯則癸水生焉 由長生而沐浴 十二位皆逆轉陽死則陰生 陰死則陽生 此二氣之分也。陽臨官則陰帝旺 陰臨官則陽帝旺。此四時之會也。順逆分合俱極妙理。論十干則分陰陽 論五行則陽統陰尤天地自然之義 故凡言 數者皆祖之此吉凶神殺所由起也

103) 지문국(2012), 「십이운성론의 명리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04) 이진훈(2010), 「십이운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박영창, 『사주학 강의』, 제6장 십이운성, 재인용.

土의 氣를 도모(盜耗)하므로 사궁(死宮)이 된다. 『삼명통회』에서는 위와 같이 丙火와 戊土가 화토동궁(火土同宮)임을 설명하고 있다. 명리학설은 고법삼명학과 신법자평학으로 구별된다. 고법은 수토동궁(水土同宮)을 주장하고 신법은 화토동궁(火土同宮)을 주장한다. 土 오행의 포태법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戊土의 경우 삼명학에서는 壬水와 戊土의 생왕묘절이 같고, 자평학에서는 丙火와 戊土의 생왕묘절이 같다. 己土의 경우 삼명학에서는 癸水와 己土의 생왕묘절이 같고, 자평학에서는 丁火와 己土의 생왕묘절이 같다. 자평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명리학에서는 화토동궁설(火土同宮說)이 다수설이다.[105]

3. 결론

『협길통의』 본원일에서는 오행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행(五行)에서는 오행의 기원, 성질, 활용과 특히 土오행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납음오행(納音五行)에서는 납음을 구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간지오행(干支五行)에서는 천간 5합, 지지 6합과 3합의 성립과정과 원리를 상세히 보여준다. 넷째 오행생왕(五行生旺)은 오늘날 12운성론으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土오행의 12운성과 음생양사·양순음역설(陰生陽死·陽順陰逆說)을 논하고 있으나, 사주학은 어디까지나 격국과 용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이운성은 보조역할에 국한시켜야 한다.

References

[1] 성주덕 編著, 이면우·허윤섭·박권수 譯註, 『서운관지』, 479쪽, 소명출판, 2003.
[2] 양계초·풍우란 著, 김홍경 譯, ,『음양오행설의 연구』, 614쪽, 신지서원, 1993.
[3] 장동순, “음양오행이론의 과학성과 실용”, 공주대동양학연구소, 『초자연현상연구』 vol.7, 2000.
[4] 조주은, “음양오행의 통합과정 연구: 천인관계론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동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 김기 著, 『음양오행설의 이해』, 420쪽, 문사철, 2016.
[6] 김기승·이상천 著, 『음양오행설의 역사와 원리』, 430쪽, 다산글방.
[7]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 이민홍, “오행론의 인문학적 위상과 동아시아 역대왕조”,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vol.75, 2018.
[9] 김기승 著, 『과학명리』, 494쪽, 다산글방, 2016.
[10] 백영관 著, 『사주정설』, 286쪽, 명문당, 1985.
[11] 지문국, “십이운성론의 명리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 이진훈, “십이운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3] 민종현, 『협길통의:(幷)부록』, 운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1795.
[14] 윤록·하국종·매곡성 著, 김지문 譯註,『흠정협기변방서 상·중·하』, 台北: 세계지식출판. 2015.
[15] 위명원 著, 진명 注, 『상길통서 상·중·하』, 台北: 중의고적출판사, 2011.

105) 박영창(2017),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6회 동양학학술세미나, 「훈민정음 해례본 오행배속의 문제점 검토」, 연구자 정리.

권 영 수(Kwon, Yung Su)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명리학, 천문학, 경학
- E-Mail : samsinang@naver.com

김 기 승(Kim, Ki-Seung)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